

지방자치·국제

부정경선 통합진보 갈등 '점입가경'

전국운영위·중앙위서 비대위 구성 충돌 예고
재야원로 원탁회의 "재창당 수준 간접" 주문

19대 총선 비례대표 부정 경선의 축으로 출발된 통합진보당 내 갈등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비당권파는 경선에 참여한 비례대표 당선자 및 후보 총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당권파는 진상조사 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며 버티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특히 비당권파가 10일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인선하고 12일 중앙위원회에서 비대위 구성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권파는 비대위 구성은 절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어 전운이 감돌고 있다.

당권파는 비당권파가 비대위 구성 안건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 내지 몸싸움을 통해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대총돌이 벌어

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재야 원로들까지 나서 시급한 사태 해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는 표면적으로 비례대표 경선을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지만 그 기저에는 해묵은 계파 갈등이 숨어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NL·자주파)과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PD·진신당 탈당파)가 만든 정당이다. 또 민노당은 경기동부연합과 광주전남연합, 인천연합, 울산연합으로 구성돼있다.

이번 갈등의 대립구도는 경기동부연합과 광주전남연합을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 민노당 출신의 인천·울산연합 출신으로 구성된 비당권파의 대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권파는 비당권파가 비대위 구성 안건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 내지 몸싸움을 통해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대총돌이 벌어

이번 계파 갈등의 도화선은 부정경선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였다. 당권파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비당권파는 부정·부실 선거가 명백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9일에도 이 같은 논란은 계속됐다.

비당권파로 진상조사위원회장을 맡았던 조준호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이 충족적 관리부실 부정경선이라는 진상조사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1차 조사 결과만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때를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

차 진상조사에서 미흡한 점은 2차 심층조사를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권파인 김선동 의원은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조사 보고서는 편파적인 예단을 앞세워 집단적 부정 선거로 규정했다"며 "조사해야 할 것은 조사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허위보고서"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러한 부실·허위 보고서, 왜곡·조작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난 5일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비례대표) 경쟁후보 총사퇴 권고 결의안 역시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홍세웅 신부 등 학계·종교계 원로 등으로 구성된 '희망2013·승리2012원탁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당내의 분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재창당 수준으로 간신히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촉구했다. 원탁회의는 또 "지금은 진상규명 정도가 미흡하다거나 누가 얼마나 억울한가를 따지기 전에 사태의 본질을 짜뚫어야 한다"며 "국민이 하나를 내려놓는 반성을 요구할 때 통합진보당 스스로 둘, 셋을 내던지는 희생을 감내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당권파인 김선동 의원은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조사 보고서는 편파적인 예단을 앞세워 집단적 부정 선거로 규정했다"며 "조사해야 할 것은 조사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광주지역 예비창업자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와 '시니어 비즈플라자' 개소식이 9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무등빌딩 10층에 열렸다. 광주시와 중소기업청이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설립한 이들 센터는 예비창업자에게 경영·회계·세무·법률에 관한 상담과 교육 등 창업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인 창조기업 센터 개소식

광주시와 중소기업청이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설립한 이들 센터는 예비창업자에게 경영·회계·세무·법률에 관한 상담과 교육 등 창업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는 10일부터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검사위원 10명은 10일 교육청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시 교육청과 광주시의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을 실시하고, 28일과 29일 이틀간에 걸쳐 검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하게 된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07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 10명을 선임한데 이어, 지난 4일 의장실에서 결산검사 위원 위촉식을 갖고 대표위원에 김민종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을, 총괄위원장으로 조정현 회계사를 각각 선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서 국제전통주박람회 열린다

11월 김대중컨벤션센터

국내외 전통주를 한 곳에서 선보이는 국제전통주박람회가 오는 11월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 국제전통주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원구)'는 9일 "국내외 품격 높은 제조주를 소개하고 국내 전통주를 세계적으로 전시·판매할 수 있는 '2012 광주 국제전통주박람회'를 오는 11월 23일부터 3일 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전통주전과 국제 주류산업, 자치단체 특산품 홍보전 등

으로 구성될 이번 전시회는 국내외 200여 개사 3000여 개 부스가 설치돼 각 국가별 전통주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전시될 예정이다.

박람회에는 또 전통주와 관련된 학술대회와 국내외 전통주 시음행사, 명인의 전통주 담그기 시연 등의 행사도 마련된다. 강원구 위원장은 "최근 한류열풍과 더불어 한식문화는 소개되고 있지만 정작 한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주가 빠져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전통주가 네리 홍보돼 국내외 시장개척 무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 구속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9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붙잡힌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훙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의 4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를 앞두고 지난 3일 시중은행 수시입출금계좌에 넣어둔 회사자금 200억원을 임의로 인출한 뒤 중국으로 밀항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3일 밤 9시께 경기 화성시 궁평한에서 선박을 타고 중국으로 몰래 가려다 붙잡혔다.

합수단은 김 회장이 인출한 200억 원 중 70억원을 다시 입금했지만 나머지 130억원은 빼돌린 뒤 은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횡령 규모와 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합수단은 김 회장이 회사 명의로 증권사에 예치된 시가 270억원이 넘는 주식을 빼내 현금화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김 회장은 지난 3일 밤 9시께 경기 화성시 궁평한에서 선박을 타고 중국으로 몰래 가려다 붙잡혔다.

합수단은 김 회장이 인출한 200억 원 중 70억원을 다시 입금했지만 나머지 130억원은 빼돌린 뒤 은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횡령 규모와 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합수단은 김 회장이 회사 명의로 증권사에 예치된 시가 270억원이 넘는 주식을 빼내 현금화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길 열린다

7월부터... 국내취업중 사업장 변경없이 근무 요건

오는 7월 2일부터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에 사업장 변경없이 성실히 일한 뒤 자진 귀국할 경우 3개월 뒤 재입국해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개선 세부 절차 등 내용을

행규칙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업종 및 사업장은 농축산업, 어업, 30인 이하(뿌리 산업은 50인 이하) 제조업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등 기초 공정 산업을 말한다. 이번

농축산업, 어업 또는 30인 이하의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제조업 중에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 산업의 경우는 50인 이하까지 가능하다.

/연합뉴스

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번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국내 취업 활동 기간내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휴폐업 등 자가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엔 미지막 사업주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농축산업, 어업 또는 30인 이하의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제조업 중에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 산업의 경우는 50인 이하까지 가능하다.

/연합뉴스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합〉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사원
- 디카구주택(원룸, 투룸, 쓰리룸)

〈토지구합〉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남님동 징수동
- 면적 : 200평~300평 · 용지지역: 자연녹지 · 용도: 주차장
- 창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 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갈실 20개 대출 492천 원 매도가 8억5천 원

〈상무구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담보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00만원

〈상무구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2평 30m 도로집, 토지전용 원료.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광산구 창고용도로 4.7평 2.5평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횡성면, 장성군 횡성면,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필

T. 062) 371-1900 ,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49.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

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을 시설분과 얻으실 분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율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및 출판부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